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 다 나 은 정 부</b>
	<b>배포일시</b>	2019. 10. 7.(월) 총 9매(본문4, 참고5)	
<b>담당 부서</b>	철도운영과	<b>담당 자</b>	• 과장 이창희, 사무관 최영록, 주무관 최문갑 • ☎ (044) 201-3970, 4774, 4634
<b>보 도 일 시</b>		2019년 10월 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7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·시행

### 광역전철, KTX 중심 운행...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철도노조가 지난 9월 18일 노사 간 임금 교섭 결렬로 10월 11일(금) 09시부터 14일(월) 09시까지(72시간)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,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, 국방부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,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.
  -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'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어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하였고,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,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.
- 우선,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국민 민감도가 높은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.

- 한편,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업무\*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, 화물열차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서 대체인력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.

\* 필수유지업무 : 철도, 항공, 수도,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정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업무

\* 필수유지운행률 : (고속) 56.9% (광역전철) 63.0% (새마을) 59.5% (무궁화) 63.0%

#### □ 파업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을 살펴보면

-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.1%이나 10.14일(月) 출근 시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운행토록 하였다. 고속열차는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2.4%로 낮아지나 파업을 하지 않는 SRT(수서고속철도)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.1% 수준이다.

- 한편, 새마을·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인 60% 수준,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에서 대체기관사\* 358명을 투입하여 평시 대비 36.8%로 운행한다.

\* 기관사 투입 : (고속) 필수유지 315명, 대체인력 55명 (광역전철) 필수유지 930명, 내부대체 165명, 군기관사 등 146명 (일반) 필수유지 840명 (화물) 내부대체 358명

#### □ 또한,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운행횟수가 줄게 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,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하여 고속버스·시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.

- 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%로 일평균 여유 좌석은 약 9.3만석,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%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-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버스(125대)와 전세버스(300대)를 투입하여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횟수가 감소함에 따라

-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연계운행\*하는 1·3·4노선의 열차운행횟수를 24회 늘리고, 열차 지연 및 혼잡도 증가 등으로 승객 수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용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하여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.

\* (1호선) 서울 : 서울역~청량리, 철도공사 : 서울역~신창 (3호선) 서울 : 구파발~오금, 철도공사 : 구파발~대화 (4호선) 서울 : 남태령~당고개, 철도공사 : 남태령~오이도

- 또한, 광역전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시내버스 수요가 20%이상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.

- 인천시는 필요시 경인선(구로~인천), 수인선(오이도~인천) 구간에 광역버스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,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거나 광역전철 노선별 이용수요 증가 추이를 지속 살피면서 이례상황 발생 시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.

□ 한편, 열차운행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공사 내부 인력 및 군기관사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공사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전문교육 등을 철저히 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며

- 이와 아울러,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되는 즉시, 열차 운행 정보를 철도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10.4일(金)부터 비상대책반(반장 : 철도국장)을 운영 중이며, 10.9일(水)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(본부장 : 제2차관)를 운영할 계획으로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므로 철도공사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운영과 최영록 사무관(☎ 044-201-47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1

## 파업 시 열차운행계획

구 분			10.11.(금)	10.12.(토)	10.13.(일)	10.14.(월)	계
고속	K T X	평시	319	330	327	277	1,253
		비상시	237 (74.3%)	224 (67.9%)	223 (68.2%)	223 (80.5%)	907 <b>(72.4%)</b>
일반	새마을	평시	70	74	74	54	272
		비상시	41 (58.6%)	44 (59.5%)	44 (59.5%)	39 (72.2%)	168 (61.8%)
	무궁화	평시	289	284	283	282	1,138
		비상시	200 (69.2%)	178 (62.7%)	177 (62.5%)	204 (72.3%)	759 (66.7%)
	누리로	평시	14	14	14	14	56
		비상시	8 (57.1%)	8 (57.1%)	8 (57.1%)	8 (57.1%)	32 (57.1%)
광역	ITX청춘	평시	36	60	54	36	186
		비상시	24 (66.7%)	35 (58.3%)	32 (59.3%)	36 (100.0%)	127 (68.3%)
	광역전철	평시	2,322	1,902	1,877	2,322	8,423
		비상시	2,004 (86.3%)	1,560 (82.0%)	1,540 (82.0%)	2,320 (99.9%)	7,424 <b>(88.1%)</b>
물류	화물	평시	212	172	118	193	695
		비상시	79 (37.3%)	49 (28.5%)	49 (41.5%)	79 (40.9%)	256 <b>(36.8%)</b>
계		평시	3,262	2,836	2,747	3,178	12,023
		비상시	2,593 (79.5%)	2,098 (74.0%)	2,073 (75.5%)	2,909 (91.5%)	9,673 <b>(80.5%)</b>

- (출퇴근 시 광역전철 운행률) 10.14(월) 출근 시 100%, 10.11(금) 퇴근 시 86.5%
- (SRT 포함 시 고속철도 전체 운행률) 81.1%, SRT 열차운행횟수 141회
- ('16년 파업 시 운행률) 고속 100%, 일반 60%, 광역 90~100%(출근 100%, 퇴근 90%) 수준

※ (여건변화) ①신선개통, ②퇴직, ③근로기준법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따라 '16년 파업 시 보다 KTX 및 전철 운행률 감축 불가피

- ① SR, 강릉선, 서해선(소사~원시)·동해선(부전~일광) 개통 등  
\* '16년 당시 SR 기관사 지원(50명) 및 강릉선 개통 준비 인력 활용
- ② 운전 경력자 인사이동, 퇴직 및 승진 등에 따라 지원 인력 감소
- ③ 근로기준법 개정('18.7.1~)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(초과근로 28→12H)

## 참고2

## 분야별 인력운영 계획(안)

□ 파업 시 철도 인력운용규모는 필수유지 인력 9,753명, 대체인력 4,632명 등 총 14,385명으로 평시(23,041명) 대비 62.4% 수준

\* 기관사 대체인력(724명) : 내부 578명, 군인력 136명, 퇴직자 10명 확보

분야별	평시	비상시 인력 (a+b)	필수 유지 인력 (a)	대 체 인 력						
				계 (b)	내부 자원	외부자원				
						소계	퇴직자	군인력	기타	
계	23,041	14,385	9,753	4,632	3,657	975	10	336	629	
운 전	기 관 사	고속	471	370	315	55	55	-	-	-
		일반	1,204	840	840	-	-	-	-	-
		광역	1,466	1,241	930	311	165	146	10	136
		물류	1,249	358	-	358	358	-	-	-
	소 계	4,390	2,809	2,085	724	578	146	10	136	-
열 차	승 무	고속	302	212	-	212	212	-	-	-
		일반	718	514	-	514	514	-	-	-
		광역	637	459	-	459	259	200	-	200
	소 계	1,657	1,185	-	1,185	985	200	-	200	-
기 타	역 무	5,634	3,282	1,810	1,472	1,472	-	-	-	
	차 량	4,357	1,919	1,530	389	286	103	-	-	103
	시 설	3,835	2,373	1,918	455	195	260	-	-	260
	전 기	2,833	2,482	2,075	407	141	266	-	-	266
	관 제	335	335	335	-	-	-	-	-	-
	소 계	16,994	10,391	7,668	2,723	2,094	629	-	-	629

- (운전·열차) 현장직 정원으로 부속기관 및 현업 팀장 등 관리지원 인력을 제외
- (역무) 필수유지인원은 운전취급 담당 역장·역무팀장 및 로컬관제원이 해당
  - \* 역사 관리, 안내 등 일반 역무원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음
- (기술) 부속기관 및 현업소속 팀장 및 스태프 등 관리부분 제외, 관제인력 포함
- (관제) 정원 기준으로 교통관제센터 315명, 본사 관제운영실 20명

## 참고3 대체인력 교육 내용

### □ 법정교육(공통)

- 현업 지원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 시 법정교육 2시간 이상 교육 시행

<산업안전보건법> 제31조 안전·보건 교육

<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>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

#### 산업안전·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

##### 1. 사업 내 안전·보건교육(제33조제1항 관련)

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시간
다.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	일용근로자	1시간 이상
	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	2시간 이상

### □ 직무 전문교육

#### ○ 운전업무

- (내 부) 고속 24h 또는 4왕복 이상 / 기타 20h 또는 3왕복 이상
- (군인력) 20h 또는 3왕복 이상

#### ○ 열차승무 업무

- (경 력 자) 8~50h (승무경력에 따라 탄력적 운영)
- (무경력자) 100h (단, 승무경력 2왕복 이상 시 단축시행 가능)

## 참고4

# 관계기관 및 운송업체 지원 협의 내용

### 1. 국방부

- (인력지원) 광역전철 기관사 136명, 전동차 승무원 200명, 통제원 19명 등 총 355명

### 2. 서울시

- (연계노선 운행확대) 일반시간대에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광역전철 운행횟수 감소에 대하여 연계노선 총 24회 운행확대 시행
  - \* (1호선 : 서울역~청량리) 10회 (3호선 : 구파발~오금) 6회 (4호선 : 당고개~사당) 8회
- 출퇴근 시간대의 연계노선 및 서울교통공사 전용 구간은 정상운행
- (비상열차 긴급 투입) 열차 지연, 혼잡도 증가 등 필요시 비상 대기용으로 보유 중인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할 계획
  - \* (1호선: 서울역~청량리) 1편성 (3호선: 구파발~오금) 2편성 (4호선: 당고개~사당) 2편성
- (버스 운행확대) 실시간으로 노선별로 버스 이용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이용자가 평시 대비 20% 이상 증가 노선은 운행확대

### 3. 인천시

- (지하철 정상운행) 지하철 평시 운행수준 유지 및 정상운행
- (광역버스 운행확대) 철도파업 기간 중 이례상황 발생 시 경인선(구로~인천), 수인선(오이도~인천) 구간에 광역버스 차량을 추가투입
  - \* 예비버스 투입 3대/3개 노선(노선별 1대), 출퇴근 시간대 노선별 1~2회 운행 확대

### 4. 경기도

- ( 시내버스 운행조정) 이례상황 발생 시 광역전철 운행노선과 유사 구간에 대해서 출·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할 계획
- (예비버스 투입) 이례상황 발생 시 노선별 이용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계획

## 5.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

- (여유좌석 활용) 고속버스 평시 탑승률 55.9% 수준(일평균 118천명), 파업 시 고속버스 여유좌석 93천석 이용 가능
- (예비버스 투입) 철도수요이전에 따른 버스 수요 폭등에 대비하여 예비버스 125대를 투입하여 최대 12천명을 추가 수송 가능
  - \* 과거 철도공사 파업 시에도 철도수요의 이전효과로 고속버스 탑승률 약 70% 수준까지 상승
- (공동운수협정) 이례상황 발생 시 공동운수협정을 통한 전세버스(300대)를 투입 검토할 계획으로 최대 27천명 추가 수송 가능

## 6.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

- (시외버스 여유좌석 활용) 시외버스(6,300노선 6,826대 운행) 평시 탑승률은 47%(일평균 56만 명) 여유좌석으로 63만 명의 추가 수송 가능
  - 주요 지역의 고속·일반 열차와 유사 구간의 버스 탑승률은 평균적으로 46.3%\* 수준으로 여유좌석이 많은 편
    - \* (서울~부산) 37.4% (서울~구미) 33.7% (서울~대전) 53.2% (서울~세종) 35.0% (서울~강릉) 55.3% (서울~전주) 52.5% (서울~목포) 24.9%
    - \* 탑승률은 '19.9.23~'19.9.29 동안의 일평균, 서울은 서초남부터미널 및 동부터미널 출발 시외버스 현황
- (광역버스 여유좌석활용) 수도권 광역버스(M버스 포함)는 출근시 탑승률은 약 116%로 여유좌석이 없고 퇴근 시 탑승률은 86% 수준으로 여유좌석 다소 존재
- ( 시내버스 입석 활용) 수도권을 운행하는 일반 시내버스(17,703대)는 원칙적으로 입석이 허용되어 평시 보다 추가 수송 가능
  - 단, 승객 안전을 위한 운전사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할 계획
  - ※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기사 부족으로 예비버스 투입은 곤란, 이례상황 발생 시 공동운수협정을 통한 전세버스는 투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